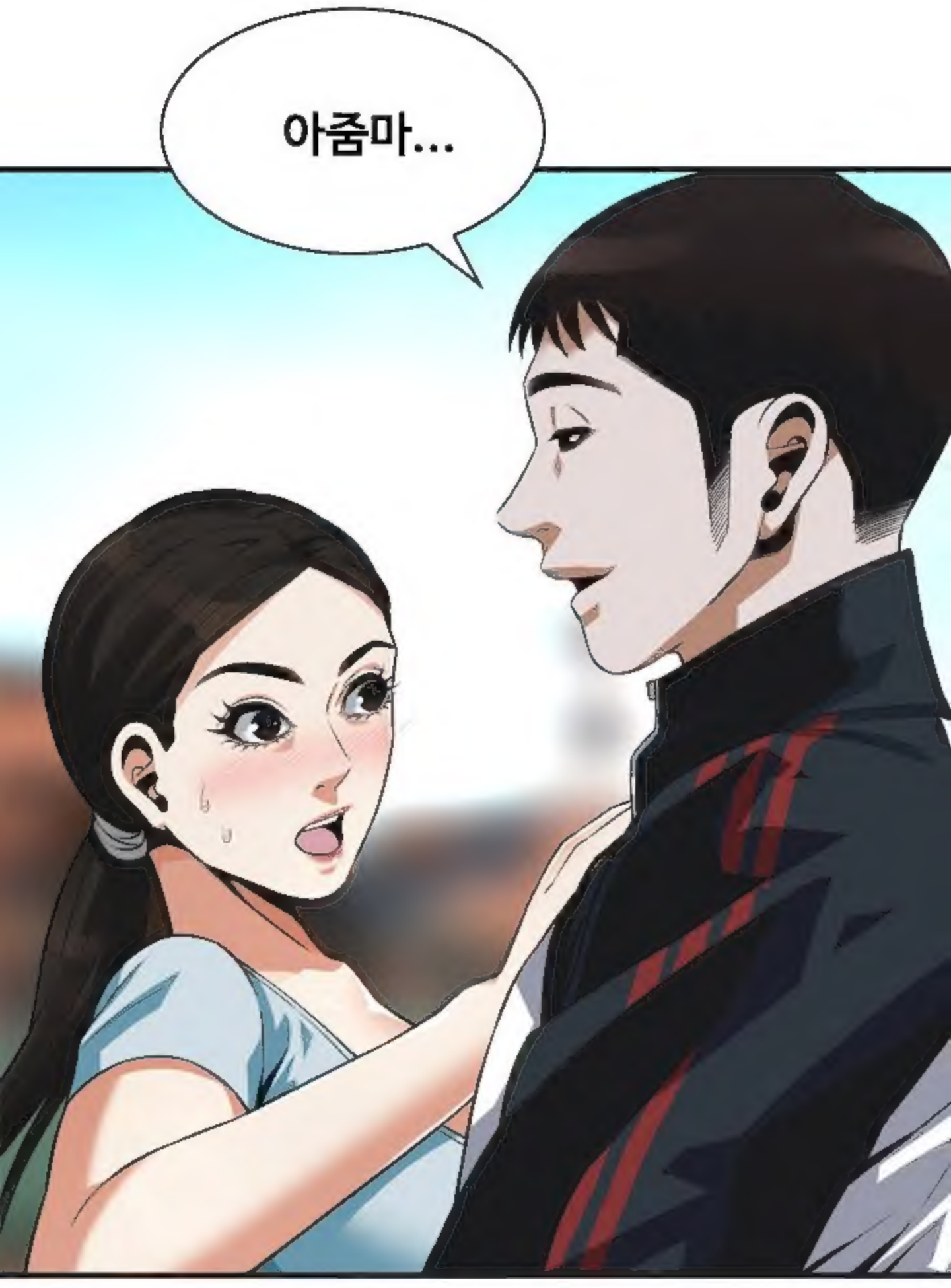

아줌마...

아줌마
지금 몸이
잔뜩 달아올라
.....

누가
좀 박아줬으면
좋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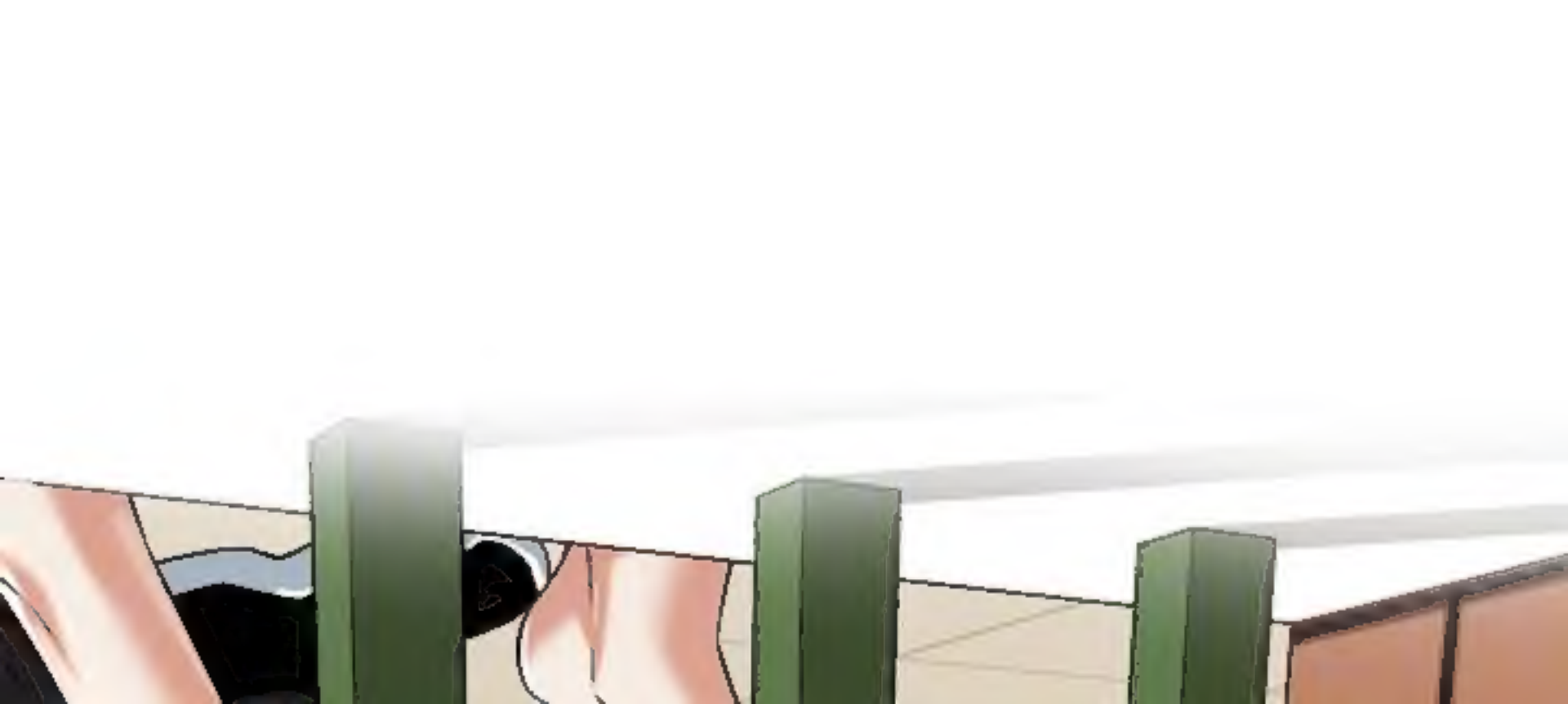
art by . 이을
story by . 타르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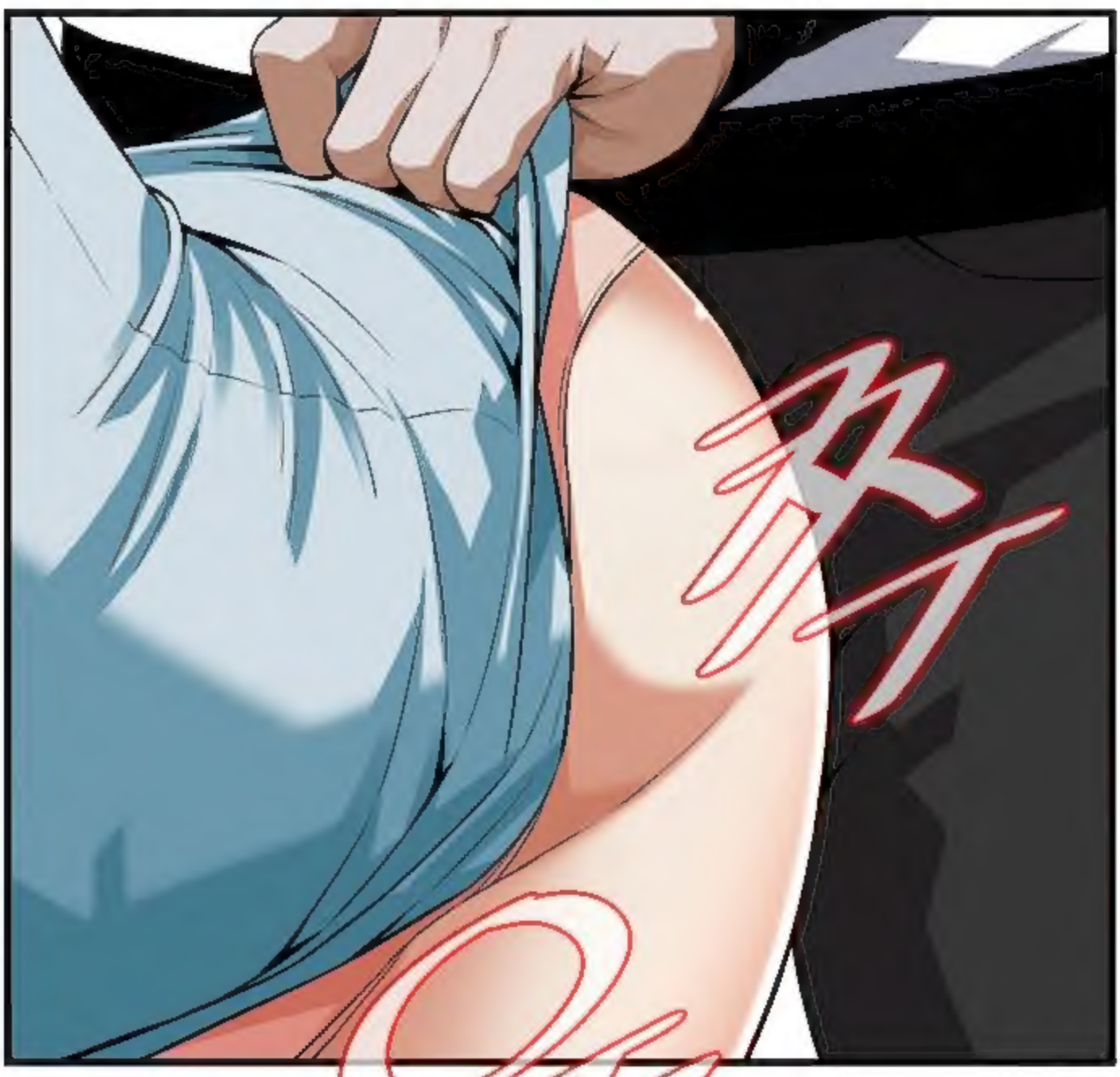
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맞죠?

탁

아앗...




쫙

아...

지금
달아오른
아줌마를 달래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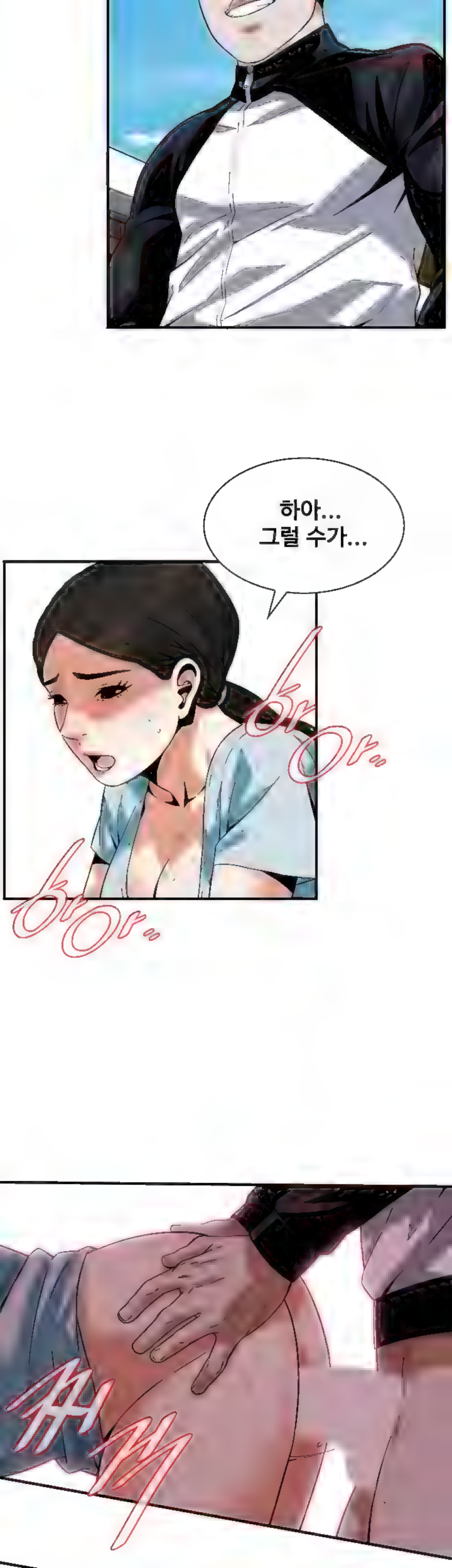
일단
박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옥상에서
내려가면
됩니다.
찰싹
묻힐
묻힐
쿠웅

여, 여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

크윽...

아줌마가 요란한
소리만 내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알았죠?


하아...
그럴 수가...
bbr.
bbr.

흐읍...
갑니다,
아줌마!

斬刃

찰떡
찰떡
찰떡
어떡해...
이건 전부...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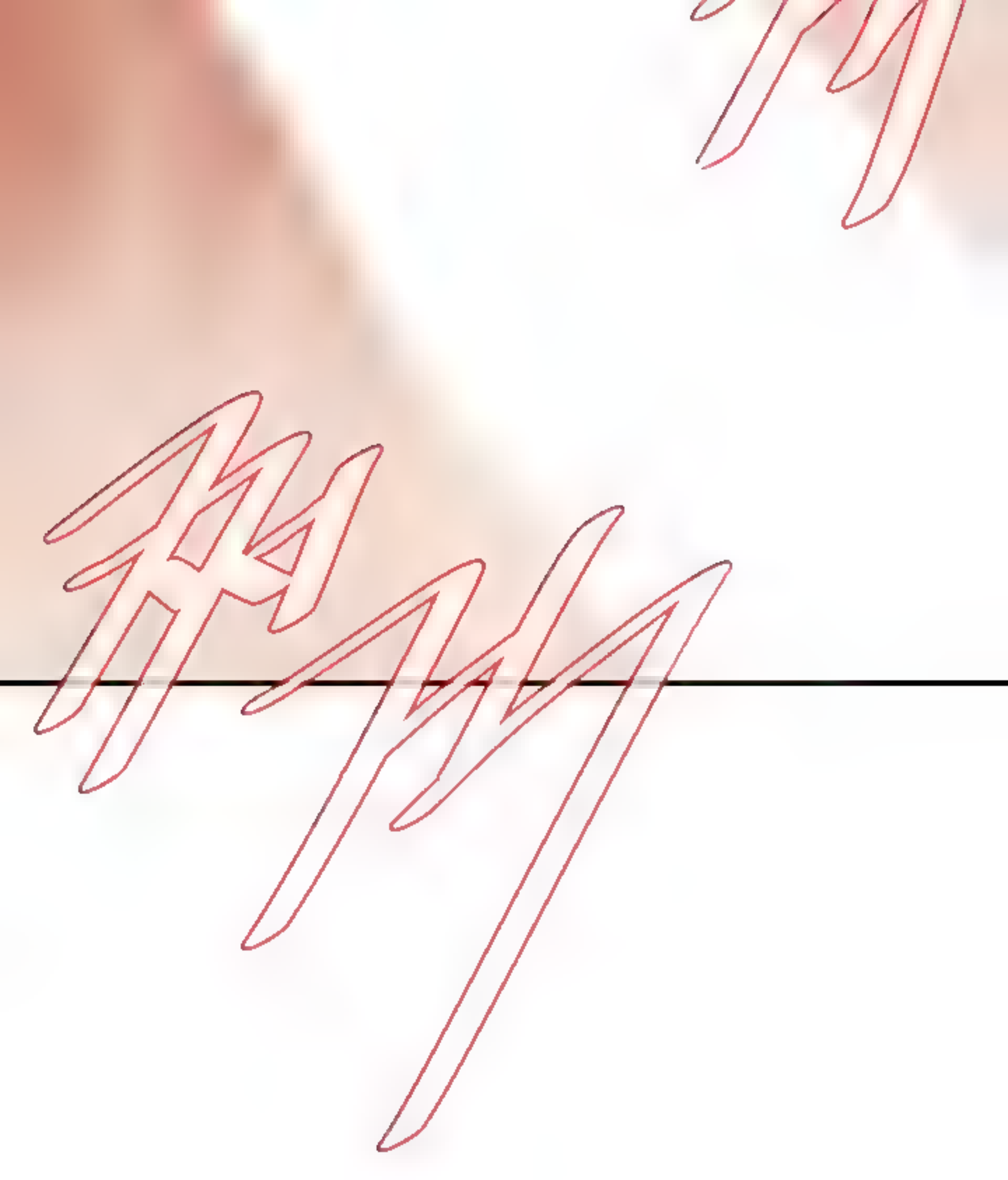
집을
나서기 전에
아버님이 건드리는
바람에...

몸이
너무 달아올라서
막을 수가 없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타이밍에 저 남자가
나타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딱 맞춘 것처럼...

아아...
답답하게 막혀 있던 곳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야.



하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요...

어젯밤
아버님 앞에서
인정한 이후로는
마치 막혔던
둑이 터진 것처럼...

온몸에 넘쳐흐르는
이 감각을 참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
크윽...
아줌마!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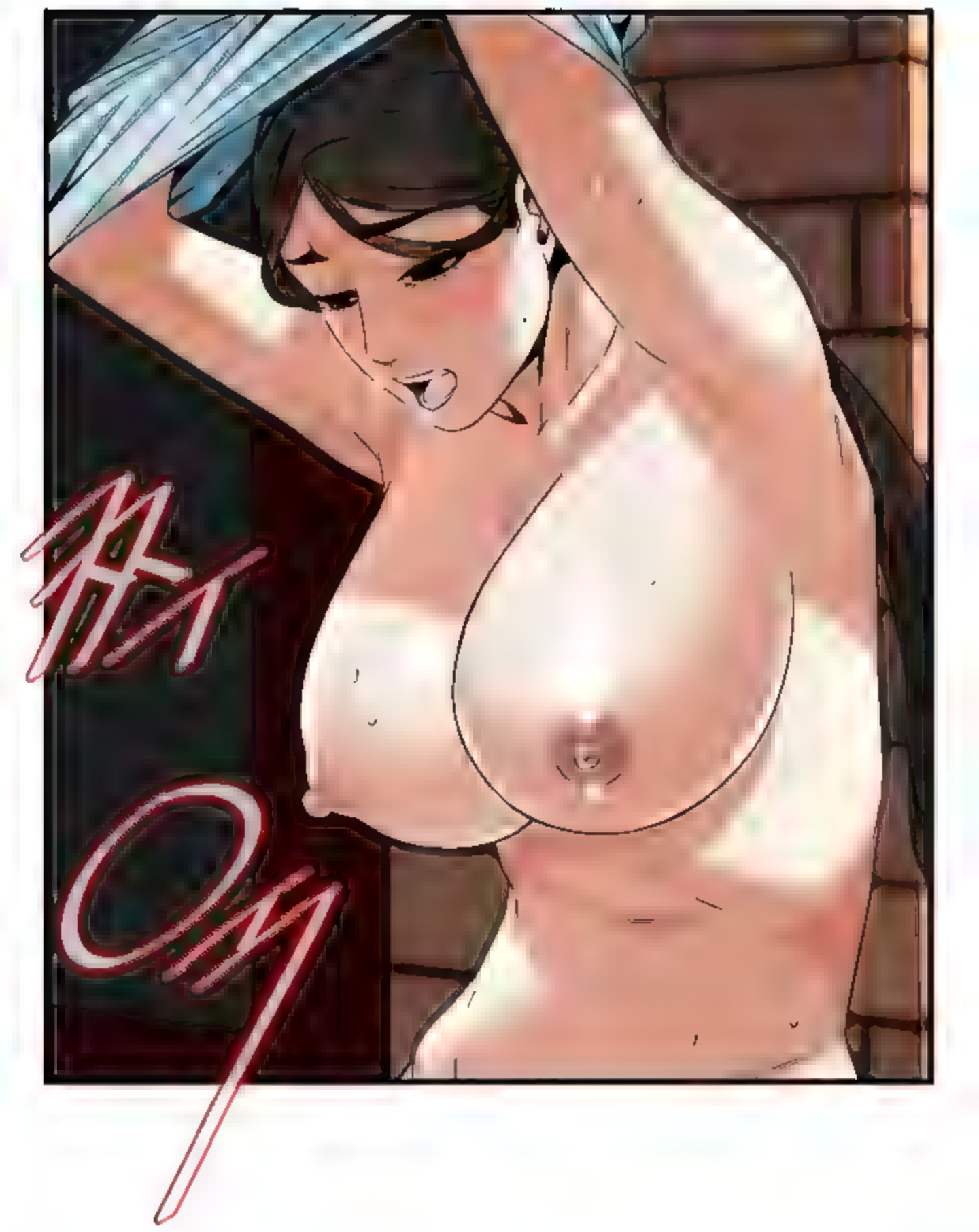
하응...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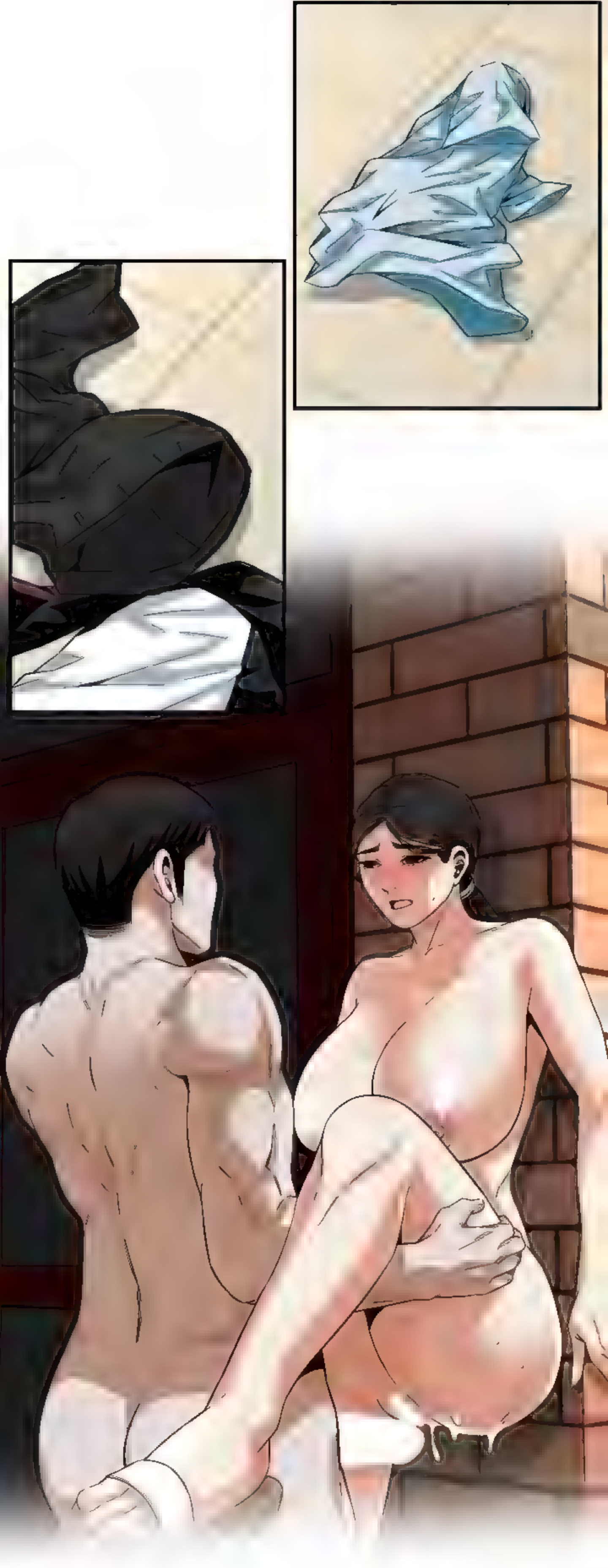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숨기고 싶지
않아져 버렸어.

!!

하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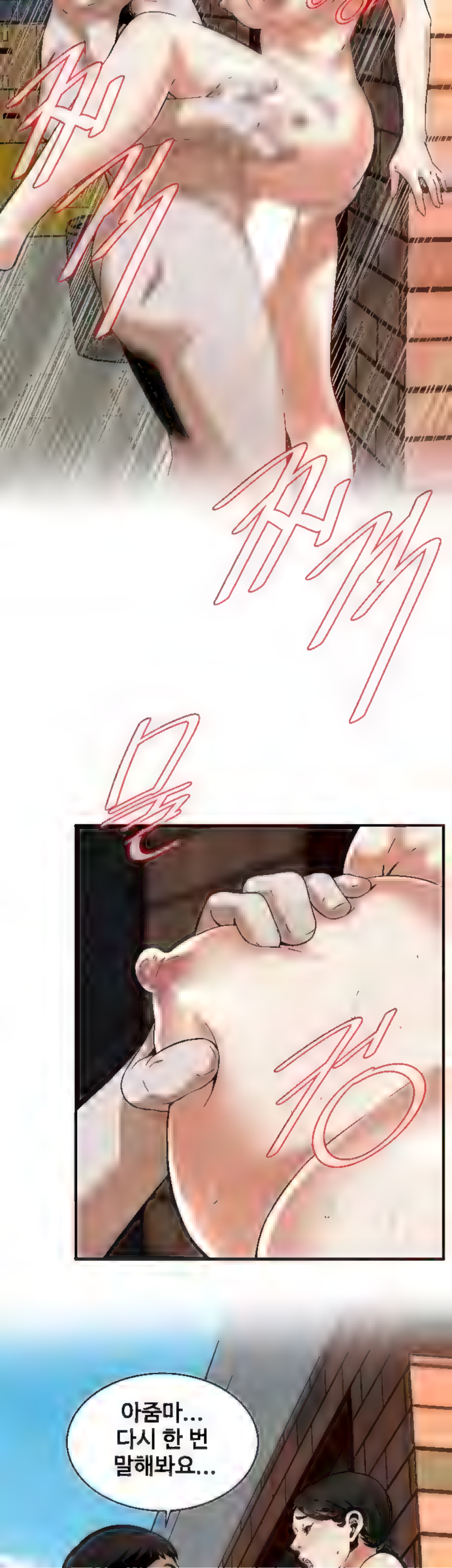
흐응...


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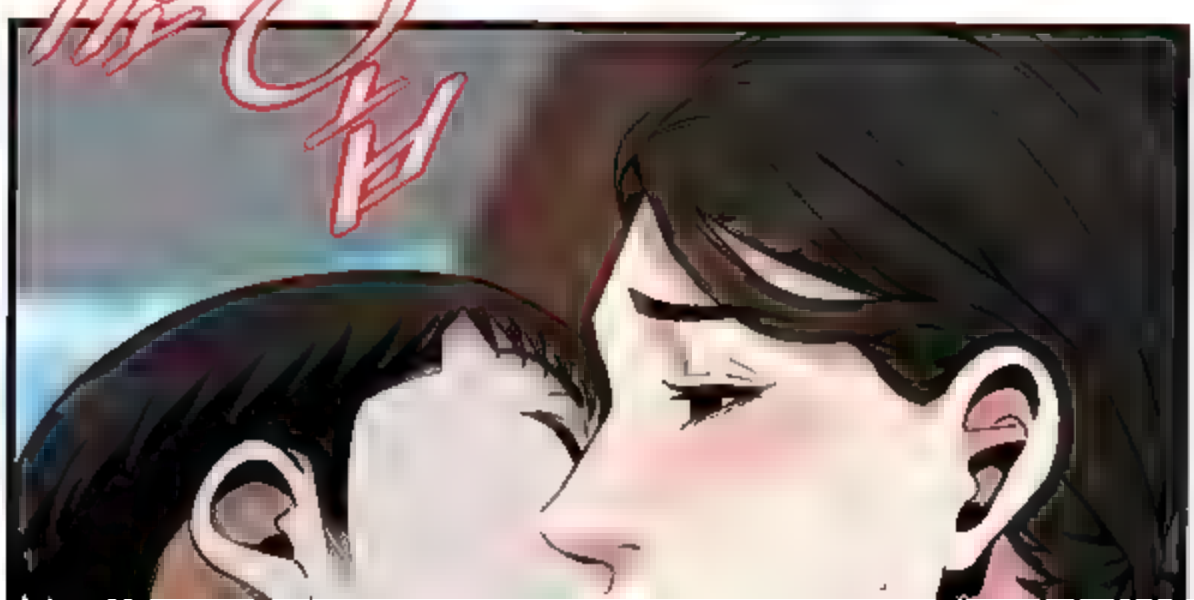
쩍
와

흐으응...
쿠쿠쿠
bbr
bbr


아줌마...
다시 한 번
말해봐요...

제가
이렇게 박아주니까
좋아요?

하아... 좋아요...
더 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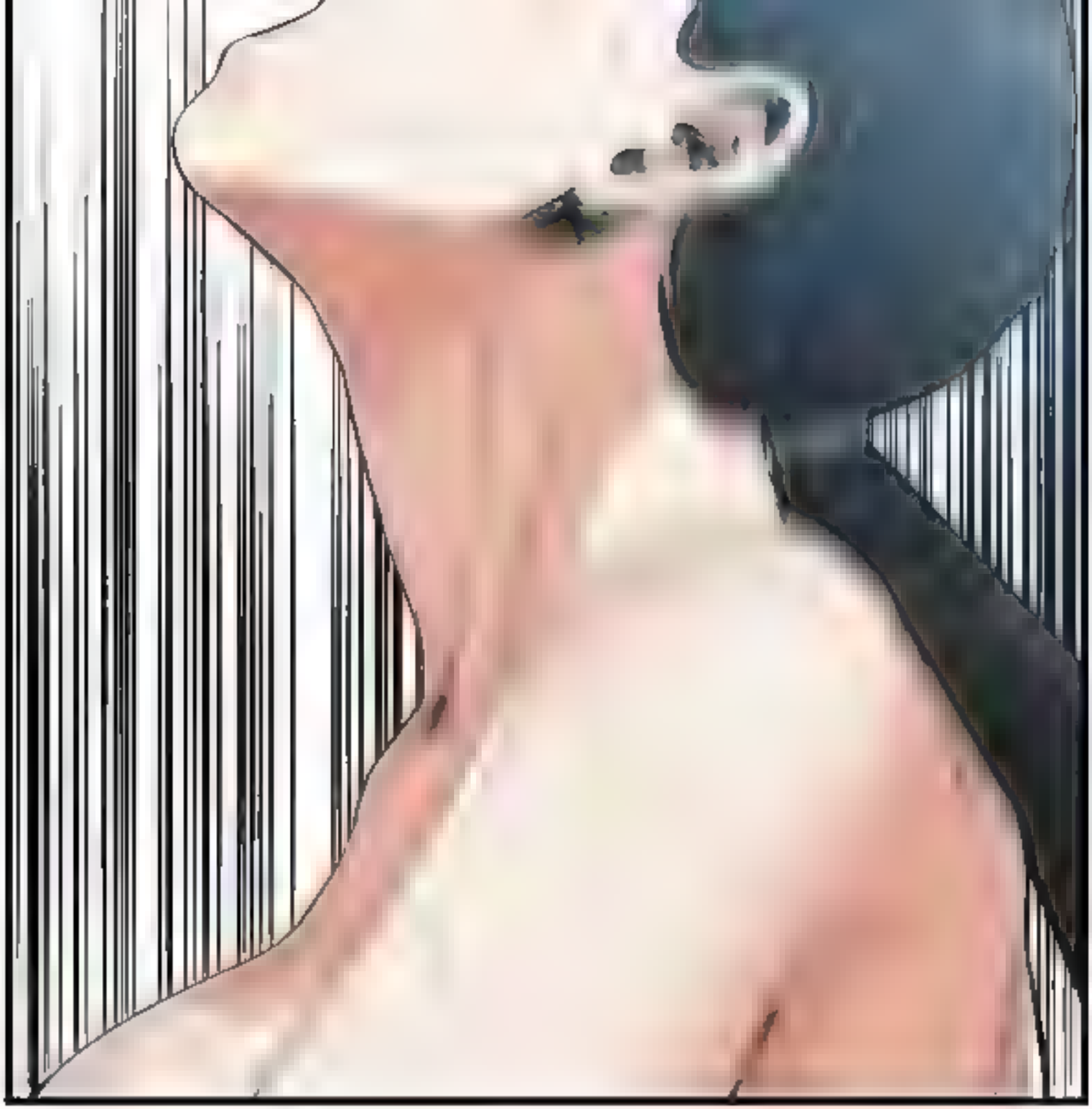
흡...

쿠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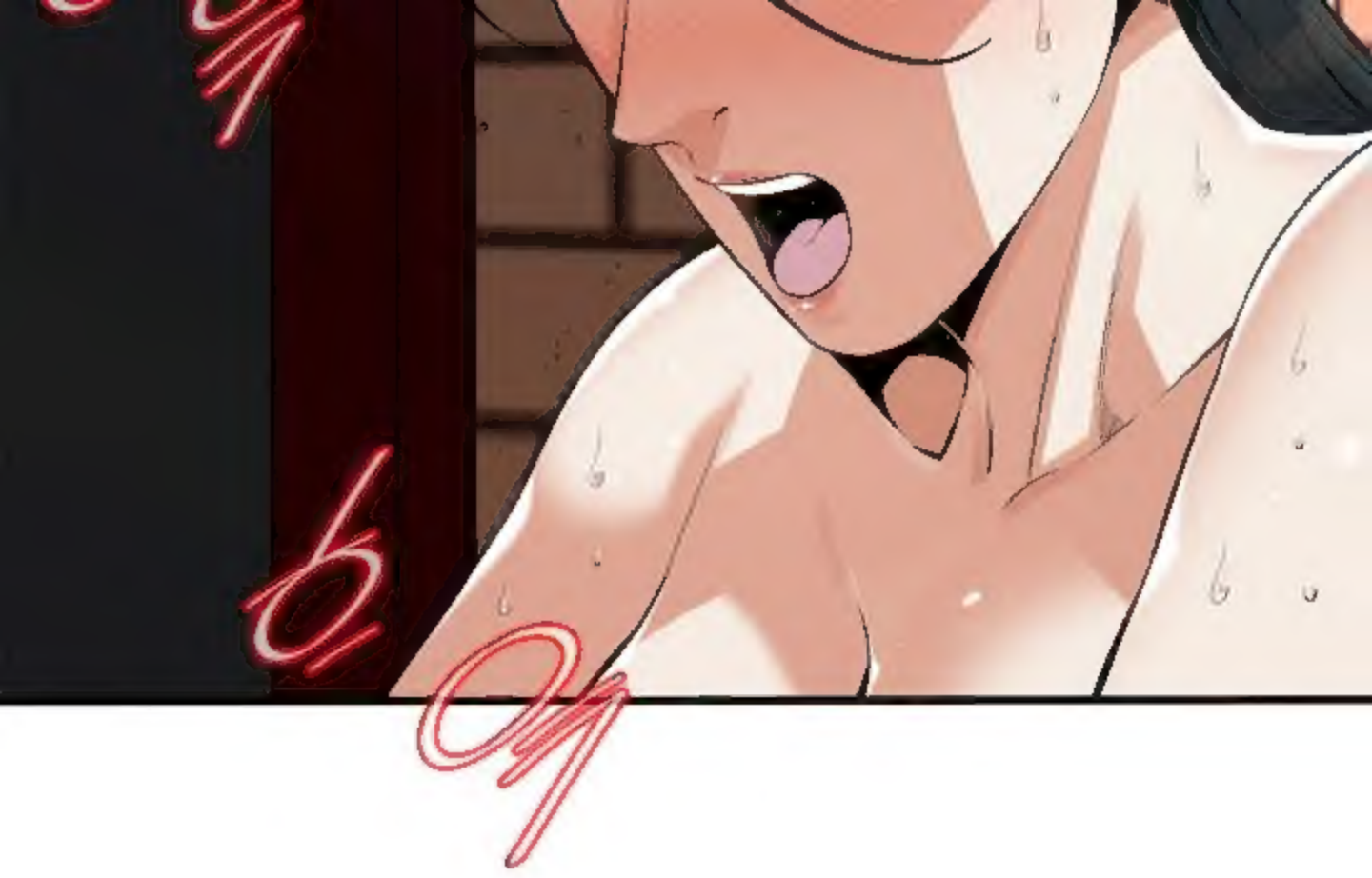
쿠웅

크윽...
쌀게요 아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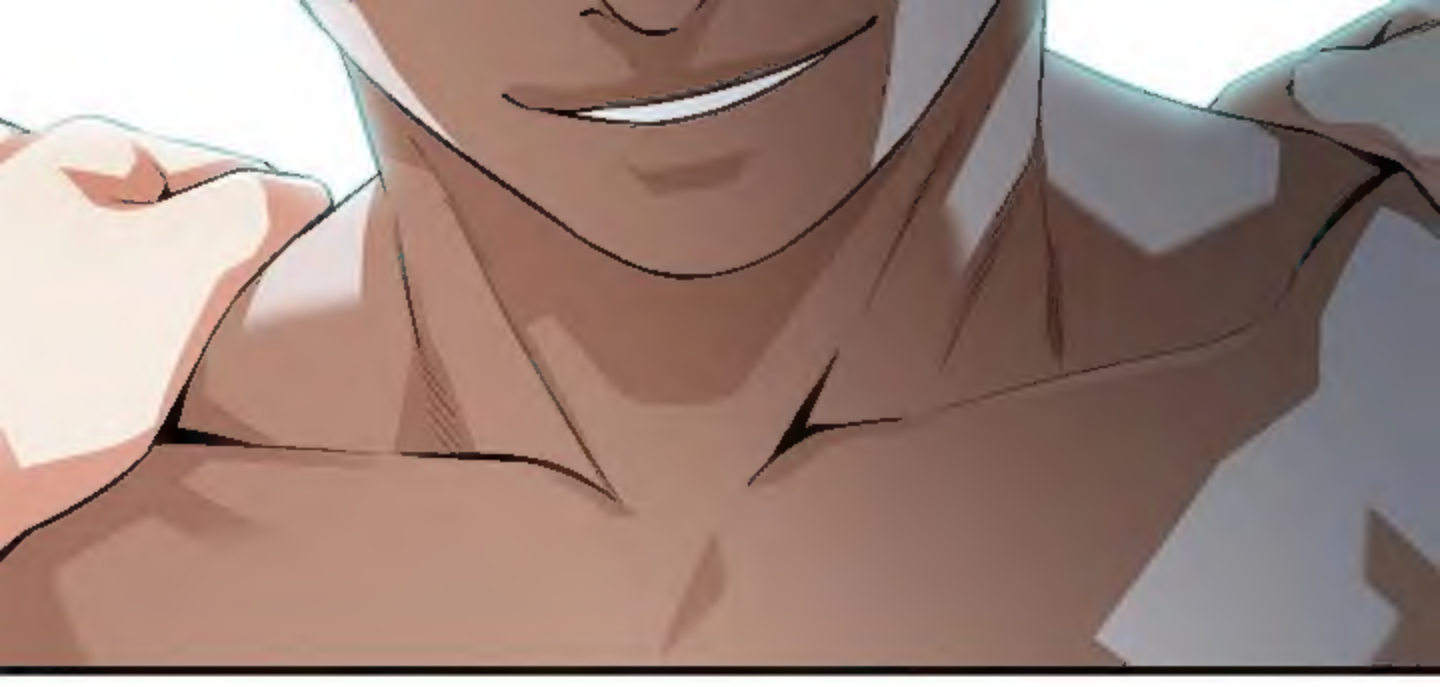
하웃!
하으응...
좋아...



하아아...
아줌마...
너무 좋아요...
헉
헉
흐으응...
이제 난 어떡해...


후후...
뭐가 걱정이에요?
.....

아줌마,
내 방으로 가서
한 번 더 해요.



bro...

계속..